

시지정사적 **관음당(觀音堂)**



관음당은 1737년 푸젠(福建) 출신 당선주(唐船主)에 의해서 건립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후, 재건과 여러 차례 보수를 거친 후 1917년에 개축된 것이 현재의 건물입니다. 입구의 아치형 석문은 당인주거지 당시의 문이라고 합니다. 본당의 오른쪽에는 자비로운 부처로 중국에서 예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관세음보살이 있고, 왼쪽에는 사업번창의 신인 관제(關帝)가 모셔져 있습니다.



**관제(關帝)**

관제는 삼국지의 유명한 명장인 관우를 신격화한 것입니다. 의협심과 충성심이 강한 인물로 칭송받는 관우는 문무를 겸비한 장군으로 예로부터 존경받고 있으며, 특히 청(淸)나라에서는 수호신으로 극진히 모셔져 있습니다. 무신으로서 신앙이 되는 것은 물론, 신의가 깊고 이재(理財)에 능하여 주판을 개발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어 재물의 신으로도 신앙 받고 있습니다.

**당인주거지의 역사**

일본은 1639년에 외국과의 무역을 중국과 네덜란드 두 곳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 일본에 온 네덜란드인들은 데지마(出島)에 머물도록 하였지만, 중국인은 나가사키 시내에 거주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밀무역과 기독교 전파의 우려가 있었기에 1689년 에도 정부는 슈젠지고(十善寺郷) 지역에 당인주거지를 건설하여 이곳에 중국인들을 살게 했습니다. 당선을 타고 나가사키에 온 중국인들은 일본 관리들의 엄격한 검사를 받은 후, 소량의 소지품만을 가지고서 당인주거지에 들어갔습니다. 당인주거지는 높은 벽과 해자(壕字), 대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출입구에는 경비를 담당하는 초소가 있어 사람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중국인은 혼자서 외출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절에 가는 경우 등 제한적인 외출만 인정되었습니다. 당인주거지 내에는 수십 채의 목조 연립주택이 있었으며, 많을 때는 약 2천 명의 중국인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859년에 일본이 개국하자, 당인주거지를 나와 오우라(大浦)의 외국인 거류지 및 신치(新地)로 이전한 중국인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당인주거지는 점차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후, 1868년에 정식으로 당인주거지가 해체되면서 179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가사키시 거리 만들기부 거리 만들기 추진실**

나가사키시 사쿠라마치 2-22  
 TEL 095(829)1272  
 FAX 095(829)1175  
 Email:machidukuri@city.nagasaki.lg.jp

**당인주거지 옛터의 4개의 사당(堂)에 대해서**



시지정사적

### 토신당(土神堂)



토신당은 당인주거지의 신당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곳으로, 1691년에 당인주거지에 거주하던 선주(船主)들의 요청으로 건립되었습니다. 1784년의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나가사키의 삼복절(三福寺)인 고후쿠지(興福寺) 절, 후쿠사이지(福濟寺) 절, 소후쿠지(崇福寺) 절에 의해서 복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화재와 노화 등으로 보수되었으며, 1977년에 복원된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토신당에 모셔져 있는 토신(土神)은 중국에서 고대 시대 때부터 모셔져 온 신으로 성황신(城隍神)이라고도 불리며 토지와 집을 지키고 풍년, 재물, 치료의 신으로 민간에 널리 믿어져 온 신입니다. 토신의 생일인 음력 2월 2일이 되면 축제가 열렸는데, 토신당 앞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여 중국 춤과 연극 등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 나가사키의 문화 속에

#### 남아있는 토신(土神)

나가사키에서는 묘비 옆에 토신이라고 적힌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가사키 특유의 풍습으로, 중국의 토신 신앙관습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시지정사적

### 천후당(天后堂)



천후당은 바다의 여신인 마조(媽祖)를 모시는 곳으로 1736년에 당인주거지에 살고 있던 중국 난징(南京)지방 출신의 당선주(唐船主)에 의해서 건립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항해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선내에 마조상(媽祖像)을 모셨으며, 일본에 도착하면 이를 당인주거지안에 있는 천후당으로 옮겼습니다. 매년 열리는 나가사키의 랜턴페스티벌에서 이 모습을 재현한 ‘마조행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후당 중앙에는 마조가 모셔져 있으며, 마조의 왼쪽에는 관제(關帝), 오른쪽에는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 마조(媽祖) 전설

마조 전설에 의하면 960년 중국 푸젠성(福建省)의 작은 섬에서 태어난 마조는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했다고 합니다. 19세 때에는 집에서 깃발을 만들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아버지와 오빠가 탄 배가 난파했다고 합니다. 마조는 재빨리 바다에 뛰어들어 오빠를 입에 물고 아버지를 잡고 필사적으로 헤엄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머니가 잠자는 마조를 깨웠고, 마조는 꿈에서 오빠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해난사고로 아버지는 살았지만, 오빠는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지정유형문화재

### 복건회관 천후당(福建會館天后堂)



당인주거지가 해체된 이후 1868년에 푸젠(福建) 남부 출신 무역상들의 회관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당인주거지 시절에는 이곳에 성인당(聖人堂)이 세워져 있었고, 같은 곳에 복건회관을 개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의 건물은 1888년에 일어난 화재로 소실되어 1897년에 현재의 회관 건물이 재건되었습니다. 본관 건물은 원자 폭탄에 의해 무너진 후, 지금은 정문과 천후당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크기가 다른 두 명의 마조(媽祖)가 모셔져 있으며, 작은 마조를 데라마치(寺町)의 고후쿠지 절로 옮기는 ‘마조행렬’을 나가사키의 랜턴페스티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조가 23살이 되었을 때는 도우카산(桃花山)이라는 산에서 금과 물의 요괴가 부근의 농작물을 망치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금의 요괴는 천 리 밖까지 볼 수 있는 천리안(千里眼)이었고 물의 요괴는 천 리 밖의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순풍이(順風耳)였습니다. 두 요괴를 발견하여 마조가 손수건을 흔들자 요괴들은 눈이 멀고 손이 마비되었고, 결국 마조에게 얹드려 용서를 빌었고, 마조는 이 두 요괴를 용서하고 해상을 지키는 일을 돕게 하였습니다. 그 후 마조는 28살이 되던 해에 가족들에게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고 작별 인사를 하고는 신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 승천했다고 합니다.